

‘화이트데이’ 편의점의 달콤·이색 유혹

GS25 ‘펍수세트’ 등 이색 7종 CU 요기요와 ‘러브 딜리버리’ 세븐일레븐 재미 더한 패키지 이마트24 와인6종 특가 선택



리를 모아 만든 ‘하리보 기획팩’을 판매한다.

최근 데이 행사가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에게도 가볍게 선물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1+1, 2+1 등 행사 상품 구색을 지난해보다 25% 이상 확대하며 다양한 실속형 상품을 선보였다. 하리보, 멘토스, 새콤달콤, 아이스브레이크스 등 인기 사랑, 젤리 등 총 130여 종 상품을 준비했다.

◆연인에게 ‘와인’은 어때?

이마트24는 와인을 앞세워 화이트데이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번 화이트데이는 지난 밸런타인데이 대비 와인 수량과 종류를 늘려 진행한다.

와인포인트 앱을 통해 ▲레 불테 델 오르넬리아 2017 ▲레 디페세 2017 ▲더프리즈너 와인컴퍼니 블라인드 폴드2017 ▲몬테펠로소, 에네오 등 6종을 특가로 만날 수 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metroseoul.co.kr

펍수세트 3종 ▲화이트데이메들리세트 2종 ▲화이트데이총명명세트 2종 등 총 7종의 이색 기획 상품 세트류와 껌커피캔디, 삼겹살모양젤리 등의 이색 상품을 선보인다. 인기가 많은 화이트데이펍수세트 3종은 3월 5일 기준으로 전체 수량 8만개 중 이미 80% 이상 조기 판매됐다.

◆연택 선물 환영해!

CU는 배달앱 ‘요기요’와 손잡고 ‘러브 딜리버리 박스’를 업계 단독으로 출시했다.

상자 크기에 따라 세 가지(소, 중, 대)로 출시되며 전국 오프라인 CU와 요기요 내 CU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해당 상품들은 배달앱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핑크색 박스 한 면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취급 주의, 메시지란 등 실제 택배 송장과 유사한 구성의 카드를 디자인해 재미를 더했다.

이처럼 CU가 화이트데이 시즌에 맞춰 배달 이벤트를 확대하

는 것은 최근 언택트 선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에 재미는 덤!

세븐일레븐은 츄파춥스(150입) 구매 고객에게 사랑 표현 문구가 담긴 뉴트로 콘셉트의 황도, 백도 패키지를 증정한다. 해당 패키지는 다양한 사랑들을 담아 DIY 선물포장으로 활용이 가능해 나만의 화이트데이 선물을 만들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이 젊은 층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음에 따라 ‘오다 주웠어’라는 재미있는 문구를 담아 무심한 듯한 시크한 콘셉트의 ‘흑심가득’ 상품도 이색적으로 준비했다. 스카치캔디, 초코쿠키 등 인기 간식거리를 담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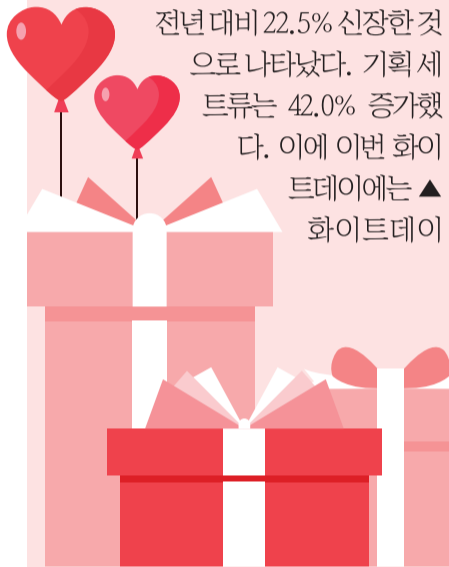
대표 인기 젤리를 모은 선물 세트도 준비했다. 유튜브 먹방 탬 지구 젤리 등으로 구성된 ‘화이트트러블리젤리’와 글든베렌, 프루티부시 등 하리보 인기 젤

편의점업계가 화이트데이 프로모션 준비로 분주한 모양새다. 이색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이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식지 않는 ‘펍수’ 인기!

GS25는 화이트데이 핵심 키워드를 유튜브와 펍수머(팬+컨슈머)로 잡았다.

편의점 GS25가 지난달에 종료된 2020년 밸런타인데이 관련 상품의 매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22.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세트류는 42.0% 증가했다. 이에 이번 화이트데이에



힐라 RGB

라이프 슈즈 ‘뉴데이팩’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힐라(FILA)는 이지 라이프 슈즈 ‘FILA RGB’에 시즌 트렌드 컬러를 추가한 신규 버전 ‘FILA RGB 뉴데이팩(사진)’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지 라이프 슈즈는 가볍고 편안하면서 일상에서 스타일 리시하게 다양한 용도로 착용할 수 있는 다목적 슈즈다.



이번 봄 새롭게 선보이는 힐라RGB 뉴데이팩은 FILA RGB의 4가지 라인(플로우, 핏, 플랫, 플렉스) 중 ‘플렉스’에 해당하는 모델로 이뤄졌다. FILA RGB 플렉스는 힐라 고유의 플래그 로고를 깔끔한 무재봉 공법으로 연출한 갑피에 비비드한 컬러를 적용한 슬림한 형태의 슈즈다. 유연성이 뛰어난 니트 소재를 사용해 패셔너블한 착장과 편안한 착화감을 동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형지&C

‘오가닉 코튼 마스크’ 3종

형지I&C가 ‘오가닉 코튼 마스크(사진)’ 3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고품질 면원단으로 제작, 세탁 후에도 지속 사용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후 폐기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 또한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글로벌 친환경 인증기관인 컨트롤 유니온에서 인증한 유기농 순면 소재를 활용해 촉감이 부드럽고, 통기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다. ‘오가닉 코튼 마스크’는 블랙 도트, 베이지 도트, 화이트 3가지로 출시되며 남녀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사이즈는 프리(FREE) 단일이며 11번가, 네이버 스토어 등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유스바이오글로벌 ‘혈관 줄기세포’ 특허등록 완료... 치료제 개발 박차

뇌경색·뇌졸중·화상치료 등 상대적 낮은 비용 대체 기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혈관줄기세포가 특허를 받았다. 체내에서 혈관을 재생하는 기능 강화 줄기세포로 치료제 개발에 큰 기대를 모은다.

유스바이오글로벌은 9일 제대혈로부터 유래된 혈관내피전구세포(EPC)에 특허조성물(천연물유래의 기능 강화 인자)을 첨가해 손상된 혈관에 직접 작용해 조직재생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특허 등록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유스바이오글로벌은 곧 특허기술을 활용한 배양액을 출시해 수입제품

이 독과점하고 있는 배양액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당뇨병 족부궤양, 허혈성 심질환 및 미숙아망막병증 등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허기술은 뇌경색, 뇌졸중, 화상치료, 피부노화 방지, 개선 및 부인과 질환 등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돼,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해외 줄기세포치료제를 낮은 비용으로 대체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유스바이오글로벌에 따르면 EPC에 특허 받은 배양조성물을 첨가하면, 혈관형성 촉진인자를 다량분비하게 만들어 인접한 혈관 및 조직에 직

접적으로 작용하고, 혈관형성 및 조직 재생에 기여하는 것이 확인됐다.

유스바이오글로벌 관계자는 “이방식으로 안전성과 효능이 보장된 훌륭한 혈관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다”며 “특히 기존의 다른 줄기세포와 달리 윤리적인 논란의 문제가 없고, 동물유래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무이종 배양 조성물이기에 동물성 병원체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EPC는 성체 내 새로운 혈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밝혀졌었고, 허혈성 심질환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주목을 받으며, 2012년 일본 연구진에게 노벨상의 영예를

안겨주기도 했다. 다만, 세포의 증폭 및 분화법 미비로 아직까지 줄기세포 치료제로 상용화되지는 못한 한계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유스바이오글로벌이 특허받은 배양액 및 배양법은 높은 세포 증식능을 가지며, 혈관형성 및 혈관 재생능의 탁월한 효과를 가진 세포로 성장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 배양액의 성분이 무이종이면서 천연물유래의 무성분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안전하며, EPC는 30번의 반복적인 계대배양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도의 세포 증식이 가능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총 획득 가능한 세포 수는 기존 EPC 배양방식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많아 체외 증폭효율이 월등함이 증명됐다”며 “1개의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배양해 최소 1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식가능한 높은 세포증식률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 신청

EMA 허가 완료 후 유럽 출시 계획

셀트리온은 지난 6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의 유럽의약품청(EMA)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CT-P17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191억 6900만달러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류마티스관절염, 궤양성대장염, 건선 등 휴미라에 승인된 모든 적응증을 바탕으로 임상데이터를 제출했으며,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EMA의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유럽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CT-P17은 아달리무맙 성분 바이오시밀러로는 처음 선보인 고농도 제형으로, 환자 편의성을 위해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여 기존에 출시된 휴

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 또 CT-P17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자가 주사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한 제형으로 개발됐다.

셀트리온은 CT-P17이 출시되면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시장에서 이미 59%(지난해 3분기)의 점유율로 오리지널의약품에 뛰어넘은 램시마IV와 최근 독일과 영국에서 출시한 램시마

SC와 함께 글로벌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시장에서 막강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EMA 판매 승인을 받은 램시마SC에 이어 CT-P17의 EMA 허가 신청을 완료하며 TNF- α 억제제 시장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는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추고 개발된 제품인 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고 판단, 조기 출시를 위해 EMA 승인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아디다스

초경량 쿠셔닝 러닝화 ‘SL20’

아디다스가 러너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향상된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초경량 쿠셔닝 러닝화 ‘SL20(사진)’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SL20은 아디다스 초경량 테크놀로지인 ‘라이트스트라이크’가 미드솔 전체에 적용된 러닝화다. 라이트스트라이크는 가벼운 무게로 속도감 있는 러닝을 지원하고,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반응성이 뛰어나 달릴 때 폭발적인 추진력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끈한 실루엣의 어퍼는 신축성 있는 가벼운 스트레치 메쉬 소재로 쾌적한 착화감을 구현했으며, 봉제 라인이 없는 심리스 구조로 발에 부드럽고 편안하게 밀착된다. 독일의 명품 타이어 컨티넨탈사의 합성 고무로 제작된 우수한 내구성의 아웃솔은 미끄러운 지면, 젖은 지면 등 다양한 환경과 날씨에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선사한다. /조효정 기자

